

쓰즈키 스미에. 2020. “그래픽 노블 『풀』 일본어판 출판을 통해 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교육적 의미” 『인권연구』 3(2): 35-68.

Tsuzuki Sumie. 2020. “The Historical Educational Meaning of Imperial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System as seen through the Publication of the Graphic Novel *Grass*(草) in Japanese”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3(2): 35-68.

[일반논문]

## 그래픽 노블 『풀』 일본어판 출판을 통해 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교육적 의미

쓰즈키 스미에\*

한글초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옥선의 삶을 바탕으로 한 그래픽 노블 『풀』(김금숙, 2017)의 주제는 세계 공통 염원인 인간의 존엄과 평화다. 필자는 히로시마현의 중학교 교사 시절 평화교육과 성교육의 관점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더불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피해자들 지원 운동과 한일시민연대 활동을 해 왔다. 우경화한 일본 사회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자민당 정권은 가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며 배상도 거부하고 있다. 일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를 추종하는 듯한 판결을 되풀이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 입시에 편중되면서 근현대사는 경시되고, 뜻 있는 교사와 만날 기회가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해 과거 일본이 저지른 가해 사실을 배울 기회가 적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생들은 전쟁이 가해와 피해의 이항 대립이 아니라 가해와 피해 관계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어렵다. 필자는 독서를 기피하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만화를 매개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알리고 평화를 회구하는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해 『풀』의 일본어판 출판에 매달렸다. 논문의 전반부는 착상에서 출판에 이르기까지를, 후반부는 <작가와의 만남>의 경과와 매스컴, 우익, 시민의 반응을 기록·분석한다. 크라우드펀딩(CF) 지원 메시지나 <작가와의 만남>에 참가한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전쟁·평화에 대한 일본 시민의

\* 都築寿美枝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었으며 일본 사회의 과제도 엿볼 수 있었다.

주제어: 그래픽 노블 『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일본어 출판, 크라우드펀딩(CF), 역사 교육

---

## 목 차

### I. 서론

1. 『폴』을 만날 때까지
2. 『폴』일본어 출판 동기와 목적
3. 선행 사례

### II. 본론

1. 『폴』 일본어 출판 전 단계
2. 번역작업을 통한 재인식
3. 『작가와의 만남』과 출판에 대한 반응

### III. 결론

## I. 서론

### 1. 『폴』을 만날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옥선의 삶을 그린 그래픽 노블 『폴』(김금숙, 2017)는 높은 예술성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삶을 농락당한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인류 보편적 주제인 인간의 존엄과 평화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폴』의 일본어 출판은 가능한가? 그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일본어 출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폴』의 출판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만화 『폴』의 일본어 출판의 의의를 생각해 본다.

필자는 1990년대부터 교사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을 전개해 왔다. 피폭지 히로시마의 교사로서 실천한 평화, 인권, 성교육이 그 출발점이었다. 피해 일변도의 평화교육이 아니라, 피해와 가해 양면을 알아야 전쟁과 평화의 관계가 보인다는 생각에서 조선인 강제연행과 조선인 피폭자 문제를 다루던 가운데, 1991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학순의 공식 증언이 있었다. 필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전쟁과 여성 인권 문제, 민족 문제, 그리고 계급 문제가 복합적으로 중첩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해결 운동은 성폭력 근절 운동으로 이어진다. 피해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바로 노예상태였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피해자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구조적 문제를 논할 경우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로 표기한다.<sup>1)</sup> 필자는 나눔의 집에서 인터뷰한 동영상과 피해자들이 그린 그림을 교재로 여성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 병사들에게도 초점을 맞춰, 전쟁의 구조적 폭력에 사람들이 소모품으로 편입된 사실도 가르쳤다.

더불어 필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할머니 그림 전시전><sup>2)</sup>, 영화 상영회, 증언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운동을 조직, 활동을 펼쳤다. 1998년부터 ‘관부 재판’<sup>3)</sup>(2심) 지원 활동을 시작하며 히로시마 현 동부에서 지원 단체를 만들어 대표를 맡았다.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한 이 활동을 통해 한국의 원고들이나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연대의 폭을

---

1) 자료 등의 표기가 ‘위안부’인 경우는 그대로 인용했다.

2)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그린 그림을 1997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일본 내 28개 지역을 순회하며 전시하는 기획으로, 순회 전시의 감상문을 모아 『ハルモニの絵画展』(日野詢城·都築勤, 1999)을 출간했다.

3)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3명과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1992년 12월 25일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기한 재판. 시모노세키의 한자 関(관)과 부산의 釜(부)를 따서 관부(関釜)재판이라고 부른다. 1998년 4월 27일 제1심(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 일부 원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의 소송을 인정하여 총 90만 엔을 지급하라고 일본 정부에 명령했다.

넓혔다. 그러나 이 재판은 전후배상 재판 가운데 부분적으로나마 유일하게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3월 29일 2심에서 패소했다. 이윽고 2003년 3월 25일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최고재판소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들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1990년대 말 당시 일본 사회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1997년 결성)’과 같은 역사수정주의 세력이 대두하는 등 우경화되고 있었다. 2001년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sup>4)</sup>을 취재해 방송을 준비하던 NHK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등의 우파 정치인들이 압력을 가해 프로그램 내용이 크게 변경되어 방송되기도 했다.<sup>5)</sup>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방문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드러나 북한 때리기가 표면화되었고, 2003년엔 우체국 민영화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정규직 노동자가 감소하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 속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저조했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다.

우경화 경향은 교육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1997년에는 검정을 통과한 7종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모두 실렸던 ‘위안부’ 관련 기술이 2005년에는 2종으로 줄었다. 필자와 같은 교사들은 성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성과 전쟁>에 관한 수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시민운동 측면에서도 관부재판이 패소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교사로서 평화와 인권에 기반한 해방교육<sup>6)</sup>을 실천할 기회가 축소되면서, 필자는 퇴직 후 한일 시민연대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자 마음 먹었다.

퇴직 후 2013년 한국으로 어학 유학을 한 필자는 일본군 성노예

4) 2000년 12월 8일~12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과 일본의 국가 책임을 재판하는 국제 민중 법정.

5) 제작팀이 프로그램 조작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최고재판소에서 졌다.

6) 부락 해방 운동을 통해 고안된 교육 이론으로, 차별의 구조를 간파하고 사회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교류를 거듭하며 2014년 김금숙 작가<sup>7)</sup>를 만났다.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는 작품을 그려온 김금숙 작가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깊은 교류를 하게 되었다.<sup>8)</sup> 이윽고 2017년 8월 14일, 김금숙 작가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이옥선의 삶을 그린 그래픽 노블 『풀』이 한국에서 발간됐다.

## 2. 『풀』일본어 출판 동기와 목적

2015년 ‘한일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끝내 버리려는 일본 정부와 이를 어떠한 비판 없이 받아들이려는 일본사회를 목격한 필자로서는 『풀』이 매우 가치 있는 책이라 생각되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어려운 것이고, 자신과 상관없는 과거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한 여성의 삶을 보여주면서 문제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필자를 움직인 것은 주인공 이옥선은 물론이고, 관계자들이 운동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풀』이 프랑스로 출간되고<sup>9)</sup> 영어판<sup>10)</sup>도 준비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상태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할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읽혀야 할 책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먼저 발간되고 있다는 점에 조바심이 들었다. 서울 만화박물관에서 열린 『풀』 원화전에서 필자가 만난 여중생의 어머니는 “성폭력은 집이나 학교에서도 가르치기 어려운 소재인데, 이런 식

---

7) 한국의 만화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고등장식미술학교를 졸업. 대표작품으로는 발달장애 뮤지션을 그린 『준희 오빠』, 제4·3을 그린 만화 『지슬』 등이 있으며, 『아버지의 노래』 등은 프랑스에서도 출판되었다.

8) 필자와 김금숙 작가는 2016년 1월 베트남 장애인에게 중고 휠체어와 유모차를 보내는 한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같은 해 5월, 김금숙 작가가 조선인 피폭자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 『할아버지와 지낸 하루』(김금숙, 2016)를 취재하기 위해 일본에 방문했을 때도 만나 교류했다.

9) 『les mauvaises herbes』 2018.09 DELCOURT.

10) 『GRASS』 2019.06 DRAWN & QUARTERLY HYPERALLERGIC.

으로 언급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고 했다. 나라와 사는 곳은 달라도 누구나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일본에서도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고 어떻게든 일본어 출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꽃』의 일본어 출판 첫 번째 목적은 이 내용을 일본어로 출판하여 일본 사회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은 동지들과 협력해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꽃』을 통해 일본 젊은이들에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알리는 것이었다. 독서를 기피하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만화라는 매체는 효과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필자가 이전에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만난 한국인 학생 자원봉사자는 만화 『맨발의 겐』<sup>11)</sup>을 읽으며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만화로 전하는 인류 보편의 주제는 국경을 초월해 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 3. 선행 사례

일본에서 번역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룬 한국의 그림책과 서적으로는 네 작품이 있다. 1) 이규희의 『花に水をやってくれないかい? -日本軍「慰安婦」にされたファン・クムジュの物語(꽃에 물 좀 줄래? - 일본군 ‘위안부’가 된 황금주 이야기)』, 2) 김준기의 애니메이션 그림책 『日本軍「慰安婦」被害者 少女の物語(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의 이야기)』, 3) 강제숙이 글을 쓰고 이담이 그린 그림책 『終わらない冬(끝나지 않는 겨울)』, 4) 권윤덕의 그림책 『花ばあば(꽃 할머니)』이다.

일본어 출판을 위한 한일 시민들의 협력과 양심적인 출판사의 노력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네 작품 모두 작가와 번역자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을 그리려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문제는 공통과제라

---

11) 작가인 나가자와 케이지(中沢啓治)가 자신의 원폭 피해를 바탕으로 그린 자전적 만화. 세계 23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는 인식을 가지고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평화를 회구하는 마음을 길러 주었으면 한다’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독자들에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과제를 호소하기 보다, 전시 성폭력의 비인도성을 감성에 호소하며 독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도록 하는 작품이다. 작품마다 일본어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꽃 할머니』에 관해 살펴보겠다. 그 이유는 『꽃 할머니』 출판사가 『꽃』을 출판한 고로카라(ころから)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의미’와 일본 사회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사례로서 『꽃』의 일본어 출판에 참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꽃 할머니』의 원작은 한국에서 2010년 출판되었지만 일본 출판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저자 권운덕은 당초 출판을 하기로 약속한 도신사(童心社)가 문제로 삼은 증언의 신빙성 문제보다는, 주제가 일본군 성노예제여서 일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일본 사회의 문제’가 출판을 거절한 진짜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권운덕, 2020)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지마 세이조(田島征三), 하마다 케이코(浜田桂子) 등 <평화 그림책> 시리즈에 참여한 일본의 그림책 작가들과 한일 시민들, 운동 단체의 노력으로 2018년 책이 출판되게 되었다. 그때 책을 내겠다고 나선 출판사가 고로카라였다. 『꽃 할머니』의 출판 자금 모금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이하, CF라 표기함)은 단기간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도 ‘일본 사회의 문제’가 불거졌다. CF운영 사이트가 프로젝트 소개에 “운영 사이트 측은 취지에 찬동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운영 사이트 측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무관함을 과시하며 일부 세력의 방해나 불이익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도서관 유통센터는 신간 카탈로그에 『꽃 할머니』를 실지 않았으며 아동서적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다.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평화 그림책> 시리즈 중에서도 『꽃 할머니』는 현격히 적다.<sup>13)</sup>

---

12) 프로젝트 성공 후에 운영 사이트 측에서 주최자인 고로카라에 잘못했다며 사죄를 했다.

13) 같은 시리즈인 『평화란 어떤 것』은 전국에 8000권, 다른 한국 작가의

고로카라의 기세 타카요시(木瀬貴吉)대표에 따르면 『꽃 할머니』의 판매를 거부한 대형 서점도 있었다고 한다. 권 작가가 지적하는 ‘일본 사회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 겨울』을 담당할 일본 출판사가 없어서 한국에서 인쇄 제본하고 일본에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도 겹친다.

이상의 선행 사례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술한 서적의 일본어 출판에 일본 우익세력의 공격과 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자와 도서관의 자세가 반영되어 있고, 반면 기획자의 열의와 시민들의 협력이 큰 힘이 되어 출판을 실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작자나 번역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되었다. 이 요소들은 『풀』 일본어 출판 과정에도 깊이 관계됐다.

## II. 본론

### 1. 『풀』 일본어 출판 전 단계

#### 1) 두 가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작자 김금숙을 비롯한 한국 관계자들은 『풀』의 일본어 출판에 우려를 표명했다. 첫 번째 이유는 번역 문제였다. 이 점은 우선 샘플 번역이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의 해외번역 지원사업으로 인정받은 점과 강력한 협력자를 얻음으로써 해소할 수 있었다. 공동 번역자인 이령경은 대구의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피해자들과의 만남과 인연을 통해 평화학 연구를 하게 되었다.<sup>14)</sup> 2016년 도쿄에서 『풀』주인공 이옥선의 통역을

---

작품도 500권이 장서되어 있는데 비해, 『꽃 할머니』은 200권 미만이다.

14) 이령경 <새로운 연대를 발명하는 ‘팀(Team) 『풀』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웹진 2020/9/20 (<http://www.kyeol.kr/node/220> : 2020.10.28검색).

한 적도 있는 이령경은 일본어 출판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투리 번역뿐만 아니라 사실 검증 작업에도 힘을 발휘했다. 이령경이 오랫동안 피해자들 지원 운동을 해 왔다는 점과 대구 출신 이어서 이옥선의 부산 사투리를 잘 안다는 점이 김금숙 작가를 크게 안심시켰다.

사실 더 큰 우려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일본 사회의 문제’였다.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에 대한 우익 세력의 반발이나 방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큰 과제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의 요인으로 이용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김금숙 작가도 우익의 공격을 걱정했다.<sup>15)</sup> 필자는 한국 관계자들에게 “근현대사가 경시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나 전쟁 가해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당사자 본인이 말하는 진실과 희망을 일본 독자의 감성에 호소해 일본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 『폴』은 그것을 위한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만화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 줄 것이다. 일본에는 이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다. 지금까지의 네트워크 총력을 모아 운동을 일으켜 나갈 것이다”라고 설득했다.

## 2) 『일본어 출판위원회』 출범

출판을 위해 먼저, <『폴』 일본어 출판 위원회> 를 꾸렸다.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의 명예 관장인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히로시마 네트워크>의 사무 국장인 오카하라 미치코(岡原 美知子), 그리고 필자 3명이 공동 대표가 되었다. 이케다는 당초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사를 알리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전면에 나오게 되면 우익으로부터 방해를 받

---

15) 2014년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의 증언을 소재로 한 단편 『비밀』을 출품했는데, 그때 일본 정부와 언론의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폴』의 일본 출판 후 『폴』에 대한 우익들의 직접적인 공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그가 명예관장을 맡고 있는 wam은 우익들의 폭과 협박도 받았다.<sup>16)</sup> 그런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이 운동에 몸담아 온 그의 대체 불가능한 폭넓은 인맥, 무엇보다 경험과 열정에 기대어 다시 부탁한 결과, 이케다도 공동대표로 합류했다. 우리는 학습회나 강연회, 지금까지 쌓아 온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행사장에서 일분어 출판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며 후원해 주는 지원자도 생겼다.

### 3) 클라우드펀딩(CF)

『풀』 일본어 출판을 위한 모금과 출판 의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 CF는 『꽃 할머니』 일본어 출판 경험을 가진 고로카라의 기세 대표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다. CF운영 사이트(READYFOR)에 게재하는 타이틀은 글자 수 제한과 우익에 대한 자극을 고려하며 수차례 논의를 거쳐 “세계에서 읽히는 ‘위안부’ 만화 『풀』을 번역·간행하고 싶어!”로 결정했다.

기부금 코스는 젊은 사람들도 참여하기 쉽도록 소액 코스를 생각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지원자가 선택하기 쉬운 코스가 좋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랐다<sup>17)</sup>. CF는 45일을 목표로 2019년 9월 7일부터 시작했다. <나눔의 집>에 게시는 이옥선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저러면 어떡하니?”라며 축스럽게 웃으셨다고 한다.

CF의 출발은 호조였다. 9월 9일 뉴욕 타임즈가 『풀』에 관한 기사를 실었고, 14일에는 프랑스의 일간지 휴머니티의 심사원 특별상을 수상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 19일에는 한국일보 등 한국 언론도 일본에서 진행되던 CF를 소개했다.<sup>18)</sup> 개시 10일 쯤인 9월 16일에 목표

---

16) 2016년 10월 5일과 2017년 5월 3일, wam에 “폭파하겠다. 전쟁 전시물을 철거하라. 아사히 세키호타이(赤報隊)”라는 협박 엽서가 왔다.

17) 3,000엔, 10,000엔, 30,000엔, 100,000엔 코스에 따라 감사 편지·책 증정·「작가와와의 만남」 초대·<나눔의 집> 방문 현지 지원 리텐을 설정했다.

18) 『한국일보』 2019-09-19. [일본어로 한국만화 발행, 기금에 나선 일본인

액 145만 엔을 달성했다. 기세 대표의 조언을 받아 다음 목표를 설정해 CF를 이어갔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송금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요청도 있어, 우편 계좌를 개설했다. 10월 31일에 CF가 종료(288명)되었고, 11월 30일에 우편 송금(144명)을 마감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성과였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원자들이 자기 형편에 맞춰 동참해 준 선이라 참으로 고마웠다. 이상과 같은 뜨거운 지원을 받아 대성공한 CF 덕분에 책의 판매 가격을 당초 예정보다 저렴한 가격인 권당 3,000 엔(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금숙 작가를 일본으로 초청해 국내 네 곳에서 ‘작가와와의 만남’도 개최할 수 있었다.

CF의 반응은 예상보다 컸다. 응원 메시지 중에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다. 훌륭한 활동에 동참, 응원하고 싶다”,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sup>19)</sup>, “구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sup>20)</sup> 『폴』을 빨리 읽고 싶다” 등의 뜨거운 마음들이 담겨 있었다.

## 2. 번역작업을 통한 재인식

---

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23531> : 2019.9.20 검색).

19) CF개시 한 달 전에 아이치 트리엔날레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이 시작되었는데, 트리엔날레에 출품된 일본군 ‘위안부’, 친황, 헌법 9조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 전시에 대한 테러 예고와 협박성 팩스, 전화, 메일이 실행위원회나 아이치현에 쇄도했다. 전시 내용을 비판하는 나고야시 시장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개최 사흘 만에 이 기획전이 취소됐다. 트리엔날레에 참가한 작가와 시민단체들은 즉시 항의 운동을 펼쳤고,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회장: 아이치현 지사, 회장대행: 나고야시 시장)에게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이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제기되어 9월 30일에 재개 합의가 이루어졌다. 10월 8일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의 전시는 재개되어 10월 14일 폐막까지 계속되었다.

20) 프랑스 『유마니테』 2019 만화대상 심사원 특별상 수상(2019.09.12), 『더가디언』 2019 최고의 그래픽 노블즈 선정(2019.12.08), 『뉴욕 타임스』 올해의 베스트 코믹 선정(2019.12.17) 등 다수 수상.

### 1) 주인공 이옥선의 마음 읽기

말풍선에 들어가는 글자 수로 원작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만화 특유의 번역 작업은 주인공 이옥선과 작가의 심정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늘 되새기는 작업이기도 했다. 일례를 소개해 보자. 6장 초입 작가가 이옥선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다. <나눔의 집> 입구 앞 마당에 세워진 피해자들을 모티브로 한 반나상 조각 그림과 함께 작가의 심정이 실려 있다. 이옥선의 끔찍한 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라는 작가의 고민과 갈등이 그 반나상에 투영되어 있다.

[별써 도착했다! 벌거벗은 늙은 여인의 반신상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마음이 불편하다. 할머니의 삶을 만화로 이야기한다는 핑계로 혹시 나도 할머니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닌지..... 나와 비슷한 이유로 찾아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출판사에서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 피해 체험의 증언은 당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재현시켜 강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용수는 “증언한 날에는 당시 일이 떠올라 밤잠을 설친다”고 했다. 2) 증언을 듣는 사람은 피해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생한 사실을 역사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생각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증언자들의 뇌리에는 피해 기억이 재현되어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증언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증언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이 부분 번역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

2) 그는 1990년대 히로시마 현 내에서 여러 차례 증언했지만 그때마다 증언 후의 괴로움을 이야기했다.

[다 왔다! 입구의 늙은 여인의 나신상이 묻는다. “당신도 자기 작품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악몽을 말하게 하느냐”고]

## 2) 여성인권, 계급문제,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한 묻음

작품 전반에 ‘가시나’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온다. 젊은 여성을 친근하게 부르거나 때로는 다소 업신여기는 의미를 담은 호칭이다. 당시 조선 여성들이 남존여비적인 유교 도덕이나 봉건적 가부장제 속에서 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다. “이 망할 놈이!”, “여자 주제에” 등 일본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 최근에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간주되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친근감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멸시, 차별을 드러내는 호칭이기 때문에, ‘가시나’는 장면에 따라 최대한 그 뉘앙스를 살려 번역했다.

‘수양녀’나 ‘기생’ 등은 일본 젊은 독자들을 위해 역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양녀에 관해서는 한국어판 해설을 쓴 윤명숙이 ‘이 제도가 정착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지만, 일본의 공창제도가 조선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확산되어 간 것으로 추측된다. (중략) 가난한 가정으로서는 입을 줄여 주는 방법이며, 양부모가 적은 금액으로 여자아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고 따로 설명을 하고 있다. 과거 세계공황의 여파로 불황에 빠진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호칭은 달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계급 차별과 여성차별의 중첩된 ‘수양녀’같은 일이 발생했다. 기생에 관해서는 시대에 따라 그 실체가 달랐기 때문에 역주로 시대별 변천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양딸의 일반적 의미는 일본과 같지만 가난한 가정의 딸을 돈으로 사 요릿집 등에서 일하게 하거나 접객 일을 시킨 사례도 있었다], 기생은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와 춤을 추는 일을 하던 여성]이라는 역주를 달아 일본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인공 이옥선은 가시나로 불리며 수양녀가 되어 집을 떠났고, 기생이 있는 기루에서 일을 했다. 그의 삶에 유교 도덕과 가부장제로

인한 여성 인권 소외와 일제 식민지 지배에 의한 빈곤-계급문제가 크게 관련된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됐다.

### 3) 역사적 사실의 검증과 그 의미

『풀』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다. 주인공 이옥선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한 조선 여성의 모습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예술 작품으로서 독자의 상상력이나 감성에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처음에는 작품성을 존중해 가급적 원작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게 번역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이기에 문제로 삼는 세력이 존재하는 ‘일본 사회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숫자 하나에도 시비를 걸어오는 우익 세력의 방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해도 그들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작품을 비방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자체를 부정하며 문제 해결 운동을 방해하려 든다. 이런 일본의 현실을 번역 작업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는 여러 차례 이옥선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자료나 연구도 검증해 논픽션 작품으로 만들었다. 일본 특유의 사정 때문에 작자에게 증언 내용과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일은 미안한 과정이었다. 일본 우익들의 움직임을 잘 아는 김금숙 작가는 일본 독자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흔쾌히 승낙해 줬다.

우익이 거짓이라며 공격하는 재료로 나이 표기 문제가 있다. 피해자들은 관계적으로 세는 나이로 증언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생기는 만 나이와의 오차를 두고 우익들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세는 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 젊은 독자들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등장 인물의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했다. 만 나이 계산을 위해서는 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해야 한다. 즉, 음력 1927년 10월 10일에 태어난 이옥선의 생일은 양력으로는 11월이 된다.<sup>22)</sup> 따라서 이옥선의 나이는 양력 1927년 11월을 기준으로 했다. 그가 위안소로 끌려간 것이 1942년 7월이므로 일본어

판에서는 이옥선이 위안소로 끌려간 시기를 1942년 14세로 표기했다. 현재로 치면 중학교 2학년, 필자가 가르쳤던 학생들 또래다.

주인공이 위안소에서 군인들로부터 “돈이 아닌 티켓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장면이 있다. 당초 군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어 번역판의 해설을 맡아 준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당시 중국 동북부에서는 군표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조언을 해 줬다(吉見義明, 1998). 문헌자료<sup>23)</sup>를 확인 후 다음 원작대로 번역했다. “위안부는 돈을 받은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사실 검증이 필요했다. 실제로 위안소의 형태가 다양하고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군표나 돈이 사용된 곳도 있지만 그것이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요시미 교수가 그간의 연구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는 거주지 자유, 외출의 자유, 폐업할 자유(자유 폐업), 거부할 자유가 없는 성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인공이 위안소에서 계급이 별 셋인 군인에게 고개를 뺏뺏하게 들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온다. 별 세 개는 상등병으로 육군 17계급 중 아래부터 세 번째다. 엄격한 계급 제도 속에서 억압받은 군인이 ‘위안부’에게 화풀이하는 차별 구조가 보이는 장면이다. 상등병으로 번역할까 고민했지만 당시 열네 살의 이옥선이 일본 군인의 계급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녀의 시선과 기억을 중시해 원작 그대로 “별 셋 군인에게 질을 하지 않았다고 매를 맞았어”라고 번역했다.

일본군이 저지른 난징대학살 관련 묘사에 관해서도 요시미 교수로부터 그 장면 중 몇 개의 이미지가 충칭(重慶)이나 상하이(上海) 이기에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조언을 받았다. 앞서 말했듯이 이 작품은 일본의 침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룬

22) 호적상으로는 1928년생이다. 당시 영유아의 생존율이 낮아 생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출생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23) 小林英夫, 1993. 『日本軍政下のアジア—「大東亜共栄圏」と軍票』. 岩波書店.

논픽션으로서 사실 검증은 필수적이었다. 난징대학살에 관해서는 사실 유무나 피해자수 등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 중일역사공동연구(2006~2009년)는 학살의 정의, 대상 지역과 기간, 매장기록, 인구통계 등 자료에 관한 검증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일본의 우익은 학살이 아니라 전투 행위였으며 포로 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우익은 정치 로비를 펼치고, 학회 활동과 재판 투쟁<sup>24)</sup>과 더불어 서적도 발간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유네스코는 난징에서 열린 군사 법정 판결문, 일본군이 촬영한 사진, 미국인 목사가 촬영한 필름, 생존자 및 외국인의 증언과 일기 등 11점의 난징 학살 문서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난징 군사 법정에서는 희생자 수를 30만 명 이상이라 했지만, 대상 기간이나 범위 등의 한정이 어려워서 ‘피해자 수는 여러 설이 있다’는 역주를 달았다.

반면, 난징대학살 장면은 한국을 비롯해 『풀』이 번역 발간된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난징대학살을 자행한 전범들은 도쿄 재판 및 난징 군사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일본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난징대학살을 인정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경과로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난징대학살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미군에 의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함께 역사적 전쟁 참화로 인지되고 있다. 홀로코스트나 원폭 희생자의 숫자도 정확히 단정하기 힘들지만 그 이유로 사실을 부정할 여지는 없다. 이런 역사적 경과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풀』을 일제에 의한 침략전쟁의 비인도성을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여긴다고 할 수 있다.

24) 2007년 국회에서 우익 정치인이 부정설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를 미국 의원들에게도 배포하여 ‘난징에서는 일본군의 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난징사건을 다룬 서적 저자나 출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2000년~2012년의 기간 동안 <일본 난징 학회>는 부정설을 주장하는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도쿄재판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난징대학살 사실을 부정하는 정치인들과 우익들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방관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도 같은 구도다. 세계의 상식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침략 사실을 왜곡하고 가해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자료나 사진에 문제가 있으면 침소봉대하며 작품 자체를 부정하려 든다. 이런 일본 사회의 특이성 때문에 난징 장면 번역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 필자는 난징대학살 관련 전문가인 가사하라 토쿠지(笠原十九司) 교수의 조언을 얻어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장면들을 일본 상황에 맞춰 풍요로운 내용으로 채웠다. 난징전 관련 자료<sup>25)</sup>도 다시 읽고 1990년대 난징에서 들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떠올리며 작업을 진행했다.

일제 식민지 정책에 관한 내용도 신경을 썼다. 작품 속에는 이옥선이 ‘수양딸’로 부산으로 간 1941년 전후의 일제 식민지 정책이 나온다. 이에 관해서도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당시 조선에 있었던 신사의 숫자는 문헌이나 연구자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신사 규모나 공·사립 구분 등 분류 기준의 문제와 해방되면서 소각되거나 파괴된 신사가 많기 때문이다(津田良樹·中島三千男·金花子·川村武, 2007). 신사의 규모에 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복수의 데이터가 있다. 쓰지 미노루(辻子美)씨의 도움을 받아 『「神国」の殘影 海外神社跡地写真記録』연구 데이터를 인용했다.

67쪽에는 창씨개명을 거부한 사람의 입학 혹은 진학을 방해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 학교 현장에서는 창씨개명에 대해 아주 간단한 설명을 하고 만다. 증언이나 문건 상으로는 창씨개명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았고 처벌 규정도 없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동사무소에서 제멋대로 창씨를 하는 등

---

25) 張承鈞·劉建業, 1998. 黒田清隆·梶村秀樹, 1988., 南京大虐殺60カ年実行委員会, 2002., 張允然·浦治平 他, 1985.참조.

상당히 억지스럽게 강제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김동호, 1994)<sup>26)</sup> 이에 일본 독자들이 창씨개명의 이면에는 당시 조선 사람들의 울분과 굴욕감이 서려 있으며, 궁극적으로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의 대립과 분단을 낳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면서 번역에 임했다.

『풀』에는 미군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한 참상과 조선인 원폭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김금숙 작가는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현지 취재를 하고 원폭 피해 2세의 증언도 들었다. 전쟁이란 가해와 피해의 이항 대립관계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삶이 갈가리 찢겨나간 사람들의 삶이다. 이러한 또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도 이 작품의 특징이다. 원폭 피해자 숫자에 관해 김금숙 작가와 연락을 취하면서 확인했다. 조선인 원폭 피해자의 정확한 수는 일본 정부가 공식 조사기록을 하지 않은 점, 피폭자 인정의 어려움(시기·장소·증상·증인), 가족 모두가 사망한 경우도 있어서 피해 파악이 되지 않은 점,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은 한국에서도 존재했다는 것 등의 이유로 파악하기 어렵다. 여러 자료의 검증을 통해 원작의 피해자 수치는 허용 범위라고 판단했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책이 출판된 다음, <한국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 모임> 히로시마 지부 간사를 맡으며 오랫동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활동을 해 온 도요나가 게이자부로(豊永恵三郎)에게 한국인 원폭 피해자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이 문제를 연구하며 <한국의 원폭 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 모임>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치바 준코(市場淳子)(2005)에게 문의해 자료를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필자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앞서 말한 대로 한국의 원폭 피해자 운동 단체들이 사용하는 통계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 김동호(1994)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자에게 당국이 가한 위협과 박해의 예로 각급 학교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 일, 해당 학생을 일본인 교사가 이유 없이 질책·구타해서 아이들의 애원으로 부모가 창씨하게 시켰다고 하는 경북중학교와 서울의 어느 소학교의 사례를 소개한다.

#### 4) 이름 표기

주인공 이옥선의 이름 표기는 기본적으로는 각 장 초반에 한자 이름에 한글의 원음을 가타카나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장면에 따라 표기를 달리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는 일상성을 드러내기 위해 형제 이름과 마찬가지로 <옥선>을 일본어 가타카나 표기인 『オクソン』으로 했으나 143 쪽에서는 <이옥선>이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자 이름 그대로 표기했다.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괴로운 이야기의 인터뷰를 위해 주저하며 방문한 작가와 이옥선이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작품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318 쪽의 이름 <이옥선>도 마찬가지다. 일본인 경찰관에게 심하게 맞아 한 쪽 귀가 들리지 않으면서도 의연하게 자신은 조선인 이옥선이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한자 <이옥선>에 가타카나를 달았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위안소에서 멋대로 일본식 이름을 붙여 불렀다는 증언을 많이 남겼다. 이 장면은, 조선인의 긍지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을 빼앗고 일본식 이름으로 붙여 인격을 부정하는 처사에 저항하는 주인공의 심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3. 「작가와의 만남」과 출판에 대한 반응

#### 1) 「작가와의 만남」의 목적과 과정

『풀』 일본어 출판의 목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알리는 것이다. <작가와의 만남>(이하, <만남>)도 그 운동의 일환이다. <만남>은 『풀』을 그린 작가가 여성 인권 문제를, 일제 식민지 지배 역사를, 현재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작가도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일본 시민들의 느낌과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실제로도 매스미디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아 작가와 독자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다.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마련된 <만남> 행사는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야마에서 개최되었고, 총 282 명의 시민이 함께 했다.

## 2) <김금숙 작가와의 만남>의 성과와 과제

<만남>에서 김금숙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자신의 작품이나 작품 제작에 가부장제에 대한 의문과 반발, 여성해방운동, 계급문제, 그리고 부모로부터 들었던 식민지 시절과 전쟁에 대한 기억이 영향을 미쳤다. ②『풀』의 주제는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는 글로벌한 성폭력 문제다. 각국의 독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반응 중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의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각국에서 『풀』을 인간, 여성, 전쟁의 문제로 받아들여 출간이 이어지고 있어 너무 기쁘다. ③작품의 제목인 『풀』은 밝혀도 다시 일어서는 민중의 딸을 뜻한다. 한국의 ‘호박꽃’이나 ‘할미꽃’은 남성적인 시각으로, 작품 속의 풀은 여성을 장식품으로 보는 가치관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④#Me Too 운동은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권력 문제 등이 복합하게 얽혀 있다. 한국은 세대 차이도 크고 가부장제로 인한 문제도 여전히 뿌리가 깊다.

이에 호응해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의견을 피력했다. 현장 교사들은 “일 년에 한번 ‘위안부’문제 수업을 한다. 식민지 시절 조선인이 조선어를 쓰면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흔했다. 오늘날의 일본 정부도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다. 우리 일본인들이 이웃에게 어떤 일을 자행해 왔는지를 새기는 의미에서도 『풀』은 아주 좋은 교재라고 생각한다. 출판한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남녀 간 폭력의 대부분은 ‘데이트 폭력’으로 한정되기 쉽다. 입문용으로 고교생이 주변에서 보고, 느끼기 쉬운 폭력만을 채택해 가르친다. 고등학생에게는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 학교 도서관에 넣도록 요청하겠다”며, 평화와 성교육의 부교재로 『풀』을 활용하겠다고 다짐

했다.

성폭력 문제와 여성의 인권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재인식하는 질문이나 의견도 많았다. 예를 들면, “영화 <주전장>에 나온 일본 군인이었던 사람이 ‘당시는 여성 인권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당연했고 문제가 안 된다’고 증언하는 것을 봤다. 과거 일본에서는 가난한 가정의 여성들이 팔려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일본의 여성 인권 지수는 낮다. 한국에서는 촛불시위 등 민주화운동 속에서 여성 인권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일본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실명을 공개하며 가해자를 제소하거나 성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에 문제제기를 하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한일 여성해방운동은 공통점도 있지만,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낀 참가자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젊은이들이 가해 문제를 포함한 역사와 마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고등학생은 “오늘 강연을 듣고 나는 ‘히로시마’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피해의 역사만이 아니라 가해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여전히 숨기고 싶은 과거의 무거운 문을 열고 말해주는 점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계셔준 것에 감사하고, 또 이 책을 써준 김금숙 작가에게 감사한다. 우리 젊은이야말로 역사를 마주하고, 배우고, 계승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감상을 보내왔다. 그는 인권·평화를 테마로 하는 학교 동아리에서 핵무기 반대 활동과 한센병 회복자나 동북 대지진 피해자들과의 교류 활동을 거듭해 오고 있다. 졸업생 중에는 할아버지가 원폭 피해자였다는 학생도 있었다. 특히 히로시마의 학생들은 전쟁 피해를 유사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조선인 피폭자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체험을 통해 전쟁이 지닌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다. 『풀』을 통해 이 학생들처럼 젊은이들이 ‘다시는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과 더불어 ‘가해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소중히 여겨 주길 바란다.

한편, 표지 그림을 둘러싼 견해에서는 일본 사회의 과제도 드러났

다. 한국어 판 표지는 저고리를 입고 있는 열 네 살의 이옥선과 나이가 든 지금의 이옥선이 마주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어 표지에는 행한 들판에 어린 이옥선이 홀로 서 있다. “표지를 한국어판과 같은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하면 ‘위안부’문제라는 선입견 때문에 아예 책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작품의 높은 수준을 전달하기 위해 표지를 한국어판과 달리했다”는 출판사의 입장에 찬반양론이 있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사회의 무의식을 포함한 무지, 무시, 반발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맞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하는 출판사의 고심도 느껴졌다. 어느 표지가 가장 좋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풀』을 많은 사람에게 건네겠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갈등하면서 더 나은 결론을 냈다고 본다. 『풀』의 각국 번역본 중에는 한국어판과는 다른 표지도 있다. 그 나라의 사정을 고려해 출판사가 나름의 의도를 담아 선택한 표지일 것이다. 한국어판과는 다른 표지를 두른 일본어판 『풀』을 읽는 독자들이, 차분히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김금숙 작가와의 만남>에 참가한 시민들의 의견 중에 헤이트 스피치로 대표되는 일본 우익의 움직임에 경계하고 해방운동이나 노동운동의 후퇴를 우려하는 의견과 한일 시민연대를 지향하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예를 들면, ①“일본에서도 70~80년대는 『가라유 키상』<sup>27)</sup>같은 계급과 젠더 시점에서 쓴 소설이 출간되고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움직임이 적다”, ②“헤이트를 조장하는 책들이 서점의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와 헤이트를 조장하는 책은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답답한 현실에서 가상의 적을 공격함으로써 감정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풀』 같은 책을 풀뿌리 운동으로 널리 알리다

27) 전쟁 전 일본에서 해외로 팔려가 남방의 창관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호칭. 많은 경우 가난한 가정의 소녀들이었다. 부락해방 히로시마 현 연합회는 1973년부터 이런 여성의 귀환 사업을 실시했다.

보면 또 다른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③“한국에서는 젠더 문제와 함께 계급 문제라는 시각이 시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들과 국가 사이에 거리를 두고 여러 문제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1억 총중류(一億總中流)사회라 불리던 일본에서 중산층이 붕괴하자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남기에 급급해졌고, 그래서 자신과 국가를 일체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국가가 일으킨 범죄로 인해 학대받은 사람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민중이 공감하고 권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어떤 시각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의견들이 대표적이다.

참가자들은 작가의 사상이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의식이 글로벌 과제라는 점, 또 일본과의 차이점도 깨닫고, 한국의 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느꼈다고 생각한다.

### 3) 반향

#### (1) 언론 및 운동단체의 반응

『폴』 일본어 출판을 취재·보도한 신문과 기관지들은 한일 간의 정치적 과제가 된 주제를 다룬 만화의 일본어 출판을 긍정적으로 다뤘다. 2020년 2월 14일 일본어 출판 이후 보도<sup>28)</sup>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성폭력 문제를 인류 보편의 문제로 보며 여성을 장식품인 ‘꽃’이 아닌 삶에 대한 집착을 지닌 ‘폴’로 비유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

---

28) 해방신문(히로시마현판8/05), 해방신문(전국판9/23), 아카하타(9/28), 도쿄신문(9/29), 주간 금요일(10/25), wam 기관지 43호(11월), 야후 뉴스, 차이나레코드(<https://www.recordchina.co.jp/b761579-s0-c30-d0058.html> : 2019.11.30 검색), 『페민(ふゑみん)』(3/5, 5/25), 교도통신(3/7,5/7서평), 아카하타(3/12), 조선일보(3/13), 도쿄신문(3/15), 아사히신문(3/2), 마이니치신문(3/23), 해방신문(4/5), 기타니혼신문(5/5), 류큐신보(5/5), 오키나와타임즈(5/5), 『부인통신』5월호, 이령경 <일본에서 자라는 ‘폴’ 연대> 『시사HN』, 652호 2020.3.18.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67> : 2020.7.31. 검색), ‘위안부 역사는 일본 학생들에게 성교육이자 평화교육’ 일다. 2020.7.10. (<http://www.ildaro.com/8782> : 2020.07.11.검색).

다. 서평은 교도통신 외 6개 신문과 『주간 금요일』(3/6), 『역사지리교육』 6월호에 실렸고, 주류 신문인 아사히·마이니치신문은 인터넷판에 실었다. 아사히신문은 이전에 『꽃 할머니』 출판 관련 취재는 했지만 보도는 하지 않았다. 조금씩 지방 신문에도 서평이 실리는 등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2) 시민들의 반응

『폴』일본어 출판과 <작가와의 만남>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은 앞에서 살펴 본 CF지원 메시지와 <만남>행사의 소감과 마찬가지로 작품성을 칭찬하는 것, 성폭력 문제는 인류 보편의 과제이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것, 젊은 세대에 전하는 중요성을 호소하는 것 등이었다. <만남>의 참가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감상을 올리거나 자신이 속한 연구 그룹 기관지에 서평을 실어주기도 했다. 독서 모임에서 『폴』을 다룬 그룹이나 필자와 이령경을 강사로 초빙한 시민 단체들도 있다.

몇몇 독자들은 출판사가 제공한 독서 카드에 감상을 적어 출판사 고로카라에 보냈다. “내용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나는 제일 코리안들에게 대한 헤이트에 반대하는 카운터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힘을 쏟아야겠다.”고 한 독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 다시 그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 9조를 지키고 싶다”라며 스스로의 결의를 다진 독자도 있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자기 학교 도서관에서 『폴』을 구입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처음에는 ‘위안부’관련 서적 구입, 배치는 안 된다고 거절당했지만, 그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위안부’문제는 교과서에도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하자 도서관 측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 『폴』의 도서관 배치 요청 운동에서 각지 도서관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태도도 드러났다.

#### 4) 판매 상황과 도서관의 『폴』 구입

일본어판 『폴』은 2020년 8월 1일 현재 2,370부가 팔렸다. 내역은 서점 판매(출하 수) 990부(42%), 아마존 판매 570부(24%), 강연회 및 관계자에 의한 판매 372부(16%), 도서관 구입 60부(2%), CF(우편 입금 포함) 리턴 378권(16%)이다. 여전히 도서관의 구입이 적다.

도서관에 『폴』 구입을 요청한 지원자들에게서 만화라서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는 연락이 있었다. 기세 대표도 『폴』을 구입하는 도서관이 적은 최대 원인으로 만화라는 점을 꼽았다. 일본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그린 유명한 만화 『맨발의 겐』이 있다. 『맨발의 겐』은 현재 23개 국어로 번역 출간될 정도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 당연히 일본의 많은 도서관 서가에 『맨발의 겐』이 비치되어 있다. 『폴』은 안 되지만 『맨발의 겐』은 괜찮다는 것은 일본의 전쟁 피해를 주제로 한 작품은 수용할 수 있고 가해를 주제로 한 작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한다. 물론, 『폴』의 출판과 동시에 구입 의사를 밝힌 도서관도 있지만 지자체나 도서관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차이가 있다. 『폴』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는 점, 5개 국어로 번역 출판된 점<sup>29)</sup> 등을 알리는 홍보와 도서관 구입 요청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심적인 서점과 출판사들이 가해의 역사를 주제로 한 서적들을 모아 홍보, 판매하는 북페어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동 대지진이 있었던 9월 1일을 맞아, 출판사 고로카라가 관동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을 알리는 책 북페어를 제안해 다섯 곳의 서점이 동참했다. 고로카라는 다른 출판사의 관련 책도 포함한 서적 리스트를 만들어 서점에 제공, 협력했고 그 덕분에 추가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북페어에 참가하는 서점은 아직 소수지만, 독자와 시민들의 참여로 양심적인 서점을 지키는 일도 필요한 일이다. 기세 대

29) 2020.11.30. 기준 프랑스어·영어·이탈리아어·일본어·포르투갈어로 출판되었고 우루과이어·체코어·폴란드어·러시아어·스페인어·보스니아어·중국어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표는 SNS 등 인터넷에서 좋은 서적을 알리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인터넷에 친화성이 있는 평론가가 관련 책을 소개하면 크게 매상이 오른다고 한다. 『폴』도 적극적으로 인터넷, SNS를 활용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Ⅲ. 결론

많은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폴』의 일본어 출판은 실현되었다. 실현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 활동을 통해 드러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폴』일본어 출판을 가능하게 한 첫 번째 요인은 원작의 메시지성과 높은 작품성이다. 대다수의 독자가 이 작품이 가진 메시지에 공감했다. 전시 성폭력이 언제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갈등하며 인터뷰하는 작품 속 작가의 모습에 독자는 스스로를 투영시켰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작가의 자세에 공감했다. 『폴』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이다. 일본 시민들은 사람들의 감성을 흔드는 예술이 지닌 위대한 힘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두 번째 요인은 일본어 출판위원회인 ‘팀 폴’의 연대이다. 일본어 출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저마다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 운동에 뜨거운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운동의 외연 확장은 ‘팀 폴’이 서로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됐다. 필자는 CF 진행에 대한 불안, 우익 공격에 대한 우려, 번역의 완성도와 객관성에 대한 걱정을 함께 극복하며 더 돈독해진 ‘팀 폴’의 일원이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출판 후에도 ‘팀 폴’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각지에서 강연이나 공부 모임을 열어 『폴』을 알리고, 『폴』이 사람들을 잇는 지원도 하고 있다. <작가와의 만남>행사 중에 히로시마의 조선학교를 방문한 김금숙 작가는 일본 사회 속에서 조선학교가 놓인 처지를 듣고, 귀국

한 다음에 ‘김복동 기금’을 통해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지원에 참여하였다. 도쿄의 원폭 피해자 지원 그룹은 김금숙의 『할아버지와 보낸 하루』를 일본어로 번역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경화되고 폐쇄적인 일본 사회 속에서 일본어 출판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 ‘팀 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다른 활력이 되고 있다.

셋 번째 요인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타파하고 싶은 마음에서 도전한 『풀』의 일본어 출판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지원자 중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후 배상, 성폭력, 부락해방, 한센병, 성소수자, 재일 한국인 <간첩>조작 사건, 천황제, 미군 기지, 교과서 문제 등을 다루는 사람들도 있다.

교사들이 『풀』을 부교재로 삼아 수업을 하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큰 성과다. 필자도 교사 시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주제로 수업을 할 때 겪은 시행착오에 대한 기억이 있어, 현장 교사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성폭력 문제, 식민지와 전쟁 문제, 계급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과거사가 현재의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 경향은 학교 현장에서 정치, 계급 관점에 입각한 교육 활동을 제한시키고, 교사 스스로도 자기검열에 얽매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전쟁 체험자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젊은 교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자의 입장에 선 평화교육 교재는 귀중하다.

『풀』의 일본어 출판을 통해 드러난 과제도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주제로 한 도서의 제작판매, 유통시스템의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도서관의 자세,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한일 간의 갈등과 헤이트를 조장하는 책들이 서점 입구에 쌓여 있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와 일본 사회의

의식, 그리고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고찰은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한국의 『82년생 김지영』이 일본 독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여성 인권 문제라는 공통의 과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도서 번역 출판이나 ‘한·중·일 평화 그림책 시리즈’ 프로젝트처럼 국경을 초월한 공동 작업도 더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폴』 도서 관 구입 요청 활동은 다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세계적 평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뛰어넘어 일본의 가해 문제를 알린다는 관점에서 소중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비로소 가해와 피해 관계를 넘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구조적 폭력으로서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문제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0.11.3, 논문심사일: 2020.11.30, 게재확정일: 2020.12.15.)

<그래픽 노블 ‘풀’의 한국어판, 일본어판 표지>

평화 벨리극 19



살아 있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

김금숙 만화

 보리



## 참고문헌

### 1. 한국문헌

- 김금숙. 2016. 『할아버지와 보낸 하루』. 서울: 도토리숲.  
\_\_\_\_\_. 2017. 『풀』. 파주: 보리.  
김동호. 1994. 『創氏改名』. 정운현 편역. 서울: 학민사. p.205  
권윤덕. 2020. 『나의 작은 화관 권윤덕의 그림책 이야기』. 파주: 들베개.

### 2. 일본문헌

- 이규희. 2012. 『花に水をやってくれないかい?— 日本軍「慰安婦」にされたファンクムジュの物語(꽃에 물 줘 줄래?- 일본군 ‘위안부’가 된 황금주 이야기)』. 保田千世 옮김. 東京: 梨の木舎.  
김준기. 2014. 『日本軍「慰安婦」被害者 少女の物語(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의 이야기)』. 한국정대협 옮김. 大阪: 일본 기관지 출판센터.  
강제숙·이담. 2015. 『終わらない冬(끝나지 않는 겨울)』. 양유하·都築寿美枝 옮김. 大阪: 일본 기관지 출판센터.  
권윤덕. 2018. 『花ばあば』(꽃 할머니). 桑原優香 옮김. 東京: ころから.  
市場淳子. 2005. 『ヒロシマを持ちかえった人々「韓国」の広島はなぜ生まれたのか』. 東京: 凱風社.  
稻宮康人·中島三千男. 2019. 『「神国」の残影 海外神社跡地写真記録』. 東京: 国書刊行会.  
黒田清隆·梶村秀樹. 1988. 『写真記録 日本の侵略: 中国朝鮮』. 東京: ほるぷ出版社.  
小林英夫. 1993. 『日本軍政下のアジアー「大東亜共栄圏」と軍票』. 東京: 岩波書店.  
津田良樹·中島三千男·金花子·川村武. 2007. “旧朝鮮の神社跡地調査とその検討(구조선 신사터 조사와 그 검토)” 神奈川大学. 21世紀CDEプロジェクト. 第3班 300-313.  
「南京·閉ざされた記憶」展実行委員会. 2002. 『南京大虐殺「南京·閉ざされた記憶」展図録集』. 大阪: 「南京·閉ざされた記憶」展実行委員会.

吉見義明. 1998. 『従軍慰安婦』. 東京: 岩波書店.

### 3. 자료집·기관지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2019. ‘多言語で出版されている《草》を日本語で読んでみたいとは思いませんか?’. ‘語り続ける李玉善ハルモニ(ナナムの家の李玉善さんを描いた長編マンガと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 Wamだより. Vol.43

張承鈞·劉建業. 1998. 『中国抗日戦争史写真集』.北京: 北京外文出版社.

張允然·浦治平他. 1985. 『侵華日軍南京大屠殺暴行照片集』. 南京: 南京大屠殺資料編纂員會.

### 4. 더 읽을 자료

在韓被爆者問題市民會議. 1988. 『在韓被爆者問題を考える』. 東京: 凱風舎.

戦後責任を問う・関釜裁判を支援する会. 2014. 『関釜裁判ニュース』(合本版). 福岡: 城島印刷.

<Abstract>

**The historical educational meaning of Imperial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system as seen through the publication of the graphic novel *Grass*(草) in Japanese**

Tsuzuki Sumie\*

Keum-suku Gendry Kim, *Grass*(草), 2017, Bori, is a graphic novel based on the true story of the victims of sexual slavery forced by Imperial Japanese military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t has the theme of human dignity and peace, which is a common wish of the world. In the right-leaning Japanese society, the voices calling for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honor for victims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war is barely accepted by the ruling part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hich continues to trivialize the facts of the war crime, and refuse to make individual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In Japan, there are few opportunities at school to learn about the issue of Imperial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system and other incidents relating in the war. This makes it difficult to realize that war is not a binary conflict between victimization and victimhood, but rather a structural problem that the relation between victimization and victimhood is complicated. I worked on publishing *Grass*(草) in Japanese in order to convey the issue of Imperial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system to young Japanese generation that is not interested in reading, and to foster a desire for peace. Through the messages for

---

\* SungKonghoe University

crowd funding and the voices of people at the Meeting with Keum-suku Gendry Kim, I could understand Japanese people's various views on Imperial Japanese colonial rule, war and peace, as well as the problems of Japanese society.

Key words: graphic novel *Grass*, the issue of Imperial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system, publication of Japanese edition, Crowd funding, History education